

양계초소설관과 한국개화기 문단
---양계초소설관의 수용과정과 쇠퇴원인 분석

서론

양계초에 대한 연구는 1980 년 이래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양계초 사상의 변화과정과 양계초계몽사상과 일본 및 중국신문화운동간의 관계, 양계초소설관이 중국근대소설문단에 대한 영향 및 중국전통문학과 일본문학과와의 관계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많이 연구되었다. 한국에서도 양계초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되었는데 양계초사상과 소설관이 한국에 대한 영향문제에 대해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 출현된 중국과 한국의 양계초관련 선행연구물들을 출발점으로 양계초소설관이 어떠한 경로로 한국에 전파되었으며 어떤 원인으로 한국소설계에서 수용되고 또 어떠한 원인으로 퇴조를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즉 양계초의 소설관이 한국개화기에 대한 전반영향과정을 그려내고 또 그 원인을 다시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개화기 소설문단과 양계초 소설 및 소설이론

(1). 한국 개화기 소설이론과 양계초 소설관

개화계몽시대 한국 신문가운데서 ‘소설’란을 가장 먼저 만들어 소설을 연재한 것은 <<한성신보>>이고 그 시간은 1896 년이다. 그리고 1900 대에 들어서면서는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경향신문>>, <<만세보>>, <<대한민보>>등 잡지에서도 소설을 연재하였는데¹ 양계초와 비슷한 소설관련 담론은 <<서사건국지>>, <<만세보>>의 소설관련 논설,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그리고 신채호의 소설관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서사건국지>>와 양계초

<<서사건국지>>는 1907 년 7 월에 <<대한매일신보>>에 10 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박은식이 역술한 것이다. 이 소설은 독일이 스위스를 점령하여 구국 독립의 투쟁에 앞장섰던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서사건국지>>는 1907 년에 번역된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졌다.

(ㄱ)夫小説者は 感人이 最易하고 入人이 最深하여, 風俗 階級과 教化 正道에 關係가 甚鉅한지라. (ㄴ)故로 泰書哲學者가 有言하되, 其國에 入하여 其小説의 何種이 盛行하난 것은 問하면, 其國의 人心風俗과 政治思想이 如何한 것을

¹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권영민, 76 면참조

觀하리라 하였으니, 善哉라 言乎여, ……²

(ㄷ)愈其小説의 善本으로 匹夫匹婦의 警鍾과 獨立自由의 代表를 作하고, 東洋의 日本오 維新之時에 一般學士가 皆於小説에 汲汲用力하여, 國性を 培養하고 民智를 開導하였으니……³

(ㄹ)我韓은 由來 小説의 善本이 無하여 國人所著는 九雲夢과 南征記 數種에 不過하고 自支那而來者는 西廂記와 玉樓夢과 剪燈新話와 水滸誌 等이오 國文小説은 所爲 蘇大成傳이니 少鶴士傳이니 張風雲傳이니 淑英娘子傳이니 하는 種類가 閭巷之間에 盛行하여 匹夫匹婦의 菽粟茶飯을 供하니 是는 豈荒誕無稽하고 淫靡不敬하여 適足히人心을 蕩了하고 風俗을 壞了하여 正敎와 世道에 關하여 危害不淺한지라⁴

<<서사건국지>>의 서문(ㄱ)에서는 사람을 제일 쉽게 감동시키고 마음속으로 제일 깊게 스며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설이라고 했다. 이는 양계초가 소설은 “熏, 浸, 刺, 提” 라는 4 력으로 인해 感人하고 入人하는 기묘하고 신기한 기능을 갖고 있어 문학중의 제일이라고 하는 판단과 일치한 것이다.⁵

<<서사건국지>>의 서문 (ㄴ)에서는 泰西철학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나라의 소설로서 그 나라의 인심풍속과 정치사상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양계초의 영국의 어느 名士가 소설은 국민의 혼이 이라고 하며 소설로서 전국의 議論(담론)을 변화 시킬수 있다⁶고 한 것과 일치한 것이다.

<<서사건국지>>의 서문 (ㄷ)에서의 내용은 양계초가 속어(일반민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소설을 써서 일반민중들도 나라의 치욕을 알게 하고⁷ 일본변법시기는 소설의 힘을 이용하여 변법에 성공했고⁸ 또 일본은 변법성공에서 소설의 공로가 제일 크다⁹ 고 한 것과 같고 소설로서 국민의 정신을 분발하게 하고 국민의 지식을 넓히며¹⁰ 국민의 정치사상을 발기하고 애국정신을 격려¹¹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 것이다.

<<서사건국지>>의 서문 (ㄹ)에서는 <<九雲夢>>과 <<南征記>>, <<西廂記>>, <<剪燈新話>>, <<水滸誌>>, <<蘇大成傳>>, <<少鶴士傳>>, <<張風雲傳>>, <<淑英娘子傳>>등 고전소설을 황당무계하고 음탕패설로 보면서 이는 필부필부에게 두류와 곡류를 제공하여 사회 풍속을 더럽히고 정교와 세도에 위해롭다고 비판했다. 이는 양계초가 소설은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또 막을 래야 막을 수도 없는 공기와 두류에 비교하¹²면서 <<水滸>>, <<三國>>, <<紅樓>>등 고전소설들이 일반민중들에게 도독을 가르치고 음탕을 가르쳤다¹³고 비판한 것과 같은 것이다.

² <<韓國開化期小説研究>>, 一潮閣, 1972, 李在銑 154 면참조

³ <<韓國開化期小説研究>>, 一潮閣, 1972, 李在銑 154 면참조

⁴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권영민, 78 면참조

⁵ <<論小説與群治的關係>> <<新小説>>第一卷第一期 1902년 11월

⁶ <<論小説與群治的關係>> <<新小説>>第一卷第一期 1902년 11월

⁷ <<變法通議·論幼學>>, 刊載在<<時務報>> 1897년

⁸ <<蒙學報·演義報合序>>, 原載<<時務報>> 44期, 1897년 10월

⁹ <<飲冰室自由書·文明普及之法>>, 初刊於 1899년 9월 <<清議報>>第 26冊

<<清議報全編>>中屬名<<文明普及之法>>。轉引<<絕世與傳世-梁啓超的文學道路>> 夏曉虹 2005 中華書局 199 면참조

¹⁰ <<新小説第一號>><<新民叢報>>第 22號 1902년

¹¹ <<中國唯一之小説報-新小説>>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説>>新民叢報 14號 1902년

¹² <<論小説與群治的關係>> <<新小説>>第一卷第一期 1902년 11월

¹³ <<變法通議>>中<<論幼學>>, 刊載在<<時務報>>1897년, <<譯印政治小説序>><<清議報>>第一冊, 1898년 12월

2) <<대한매일신보>>와 양계초 소설관

<<대한매일신보>> 1908 년에 나온 논설을 보아도 양계초의 소설관과 많은 공통점을 찾아 낼 수 있다.

嗚嗚라, 李人植氏여, ……<<羅賓孫漂流記>>와 如한 奇文을 譯하여 國政의 冒險心을 鼓發함도 가하며 <<若安貞德救國傳>>과 如한 壹小史를 著하여 國民의 愛國心을 鑄造함도 가하거날, 今也에 不然하여 彼도 不爲하며, 此도 不爲하고, 如한 小說을 著하여 社會上의 道德만 破壞하며, 讀者諸君을 媚倒하고,¹⁴

이 논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매일신보>>는 <<鬼의 聲>>을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쓰여지고 영리적인 추구로 지어진 작품이라고 보면서 사회의 도덕을 파괴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의 모험심을 鼓發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鑄造하는 작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도 양계초의 “신소설을 제창하는 목적은 국민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지식을 넓히게 한 것인지라 이는 도둑과 음탕만 가르쳐 사회의 도덕을 파괴하는 고전소설과 비교할 수 없다¹⁵”고 한 것과 양계초가 발간한 <<新小說>> 잡지의 주지는 “국민의 정치사상을 발기하고 애국정신을 격려하며 일체의 실적이고 도덕교육에 방해되는 것은 배제한다¹⁶”고 하며 “중국문명을 개도한다¹⁷”고 피력한 <<新小說>>잡지의 주지와도 일치한 것이다.

3) 신채호와 양계초의 소설관

개화계몽시기에 신채호의 소설담론은 <<近今 國文小說 著者の 注意>>(1908)>>와, <<小說家의 趨勢(1909)>>에 집중 표현되었다.

신채호는 <<近今 國文小說 著者の 注意>>에서 국문소설은 “其說이 俚하고 其筆이 巧하여 目不識丁의 勞動者라도 小說을 能讀치 못할 者이 無하며, 又 嗜讀치 아니할 者이 無함므로”, “社會大趨向은 종교, 정치, 법률과 같은 大哲理大學問으로 正하는 바가 아니라 국문소설이 正하는 바라”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영웅 호걸의 구체(驅體)를 助하여 천하사업을 부유주졸(婦孺走卒) 등 하등사회 如하여 인심을 전이하는 능력을 갖춘자는 소설이 是니”라고 했다. 이는 양계초의 “속어로 된 소설<<水滸>>, <<三國>>, <<紅樓>>의 독자가 古言으로 쓰여진 六經보다 많아 천하의 풍기를 형성할 수 있다¹⁸”는 것과 일치했고 정통문학에서 배제되었던 국문소설을 중시한 신채호의 관점은 또 양계초의 “국민, 종교, 정치, 풍속, 학예,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 新소설의 창작과 관계된다¹⁹”고 하면서 소설이 문장중에서 그 어느 문체도 따라갈 수 없는 사회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한 것과도 일치한 것이다.

신채호의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近今 소설 著者の 주의>>소설이 국민을 감화할 수 있는 작용을 “小說이 國民을 강한 데로 導하면 국민이 強하며 小說이

¹⁴ <<대한매일신보>>1908년 11월 8일자 1면 논설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李在銑 156면

¹⁵ <<新小說第一號>><<新民叢報>>第22號 1902년

¹⁶ <<中國唯一之小說報一新小說>>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說>>新民叢報 14號 1902년

¹⁷ <<新小說第一號>><<新民叢報>>第22號 1902년

¹⁸ <<變法通議·論幼學>>, 刊載在<<時務報>>, 1897년 1-3월

¹⁹ <<論小說와 群治의 關係>><<新小說>>第一卷第一期 1902년 11월

國民을 弱한 데로 導하면 국민이 弱하며 正한 데로 導하면 正하며 邪한 데로 導하면 邪하니, 小說家가 된 者이 適當히 自愼할 바어늘 近日 小說들은 誨淫을 主旨로 삼으니 이 社會가 將次 穢지하리오²⁰” 논술하면서 소설은 국민의 나침반이라고 했는데 이는 양계초의 “중국인의 狀元宰相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이라. 중국인의 佳人才子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이라. 중국인의 江湖盜賊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이라. 중국인의 妖巫狐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이라.”²¹라고 소설의 작용을 과장한 것과 일치한 것이다.

신채호는 고소설에 대해서는 “韓國에 傳來하는 小說이 殆半 桑園薄土의 怪談과 崇佛乞福의 怪說로다. 此亦 人心風俗을 敗壞케 하는 一端이니”이라고 비판했으며 신소설에 대해서는 “近今 新小說이라 云하는 者 刊出이 稀罕할뿐더러 又 其 刊出者를 觀한 卽 只是 牟利의 爲로 草草撰出하고 誨淫을 主旨로 삼아 舊小說에 比함이 更是 百步 五十步의 間이라”라고 하면서 신소설작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로하여 그는 “各種 新小說을 著出하여 一掃함이 亦 汲汲하다 云할지로다.”²²라고 하면서 “足히 新思想을 輸立할” 소설을 제창했다. 이러한 소설관도 양계초의 <<신소설>>잡지의 창간 주지를 역설한 것과 일치한 것이다.

상술한 내용으로 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박은식, 신채호 등의 소설관중에서 고소설을 황당무계하고 음탕패설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설문체의 특점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사회 대한 영향력을 중요시해 소설은 평이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설로 국민을 개화시키고 애국심을 배양하는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 양계초의 소설관과 일치하다.

(2). 한국 개화기 역사전기소설과 양계초 역사전기 소설

개화 시대에 국가의 번영을 주도했거나 독립을 위해 큰 공헌을 세운 인물전기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양계초의 역사전기소설을 번역한 것도 있거니와 또 양계초의 역사전기소설의 창작동기와도 일치하다.

양계초가 번역한 전기소설은 <<十五小豪杰>>, <<新英國巨人克林威爾傳>>, <<匈牙利愛國者噶蘇士傳>>, <<意大利建國三杰傳>>, <<(近世第一女杰) 罗兰夫人傳>> 등이 있는데 이는 1902년 부터 1904년 사이에 <<新民叢報>>에 발표되었다.²³ 그 중 양계초가 1902년에 번역한 <<이태리건국 3결전>>은 1907년에, 1903년에 번역한 <<항아리아국자갈소사전>>은 1906년에, 1902년에 번역한 <<나란부인전>>은 1908년에 모두 한국에서 번역출판되었다.

그리고 양계초가 1898년에 창작한 <<戊戌政變記(殉難六烈士傳)>>는 1900년 9월에 현재에 의해 번역되어 編輯局에서 翻刊²⁴되었고 1905년에 창작한 <<월남망국사>>는 1906년에 한국에서 번역출판되었다.

그 다음 한국개화기에 출현된 창작인물전기를 보아도 양계초의 인물전기 창작동기와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계초의 창작전기는 <<記江西康女士>>, <<記東俠>>, <<三先生傳>>.

²⁰ <<소설가의 추세>>, <<대한매일신보>>, 1909.12.2, 신채호

²¹ <<論小說과 群治의 關係>><<新小説>>第一卷第一期 1902년 11월

²² <<近今 소설 著者의 주의>>, <<대한매일신보>>, 1908.7.8, 신채호,

²³ <<梁啓超與日本>>天津人民出版社 史雲豔, 2005년 6월 106-107면 참조

²⁴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李在銑 149면 참조

<<戊戌政變記(殉難六烈士傳)>>, <<南海康先生傳>>, <<李鴻章>>, <<張博望班定遠合傳>>, <<(明季第一重要人物)袁崇煥傳>>, <<中國殖民八大偉人傳>>, <<(祖國大航海家)鄭和傳>>, <<王荊公>>, <<管子傳>>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清議報>>와 <<新民叢報>>에서 연재 되었다.²⁵

양계초의 창작전기의 선정된 인물로부터 그 인물은 모두 일생이 국가의 운명과 朝代교체 그리고 민족국가의 전도와 관계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계초는 <<(明季第一重要人物)袁崇煥傳>>을 창작하는 동기는 “袁崇煥 한 사람의 一身의 言動進退 그리고 그의 生死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흥망과 성쇠에 관련되기 때문이다.”²⁶ 라고 했다.

그리고 양계초의 창작전기에 선정된 인물은 또 옛 날 治史者들이 하찮게 보거나 지어는 악명이 있는 인물들이다. 管仲(管子)는 기량이 작고 王安石은 ‘간사’하고, 鄭和는 ‘환관’이라고 하여 정통적인 가치관에서는 모두 완벽하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양계초는 <<管子傳>>에서 “우리 나라는 수천년이래 관자를 숭배하는 자는 적지 않지만 비방하는 자는 배나 된다”고 탄식했으며 <<王荊公傳>>에서는 “매번 <<宋史>>를 읽을 때면 책을 덮고 통곡한다”고 하면서 왕안석이 세인들의 비방을 받는 왕안석의 운명에 서러워했다. 이로 양계초는 옛날 治史者들의 史書에서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어는 악명이 있는 인물들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평가했다.

한국 창작전기 소설 신채호의 <<을지문덕>>, <<이순신전>>, <<최도통전>>, 박은식의 <<천개소문전>>을 보면 양계초의 인물전기창작동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채호는 <<을지문덕>>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과 기타 역사학자들과 다른 관점을 보였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을지문덕의 공적이 김춘추보다 못하고 을지문덕의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敵國의 군대를 끌어와 고구려의 멸망원인을 을지문덕에 있다고 하면서 을지문덕을 비판하고 김춘추에 대해서는 문무가 겸비했고 시세를 동찰하여 당나라의 힘을 빌어 3 국을 통일했다고 그의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신채호는 김춘추가 국외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매국적 행위라고 통탄하면서 을지문덕은 독립적인 외교정책으로 백제가 중립하게 하고 돌궐과 수나라의 연합을 막고 말갈과 거란의 힘을 빌어 수나라와 대결해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 조선백성이 조선국토에서 생활하게 한 조선의 위인이고 조선후세에세 독립의 정신을 일깨워 준 聖神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삼국사기>>에서는 연개소문이 당시 100 여명이 넘는 당나라와 연합하려는 귀족들은 모두 처치하고 영류대왕을 살해하고 寶藏太王을 옹립해 인사권과 군사권을 총괄한 사실로 인해 그를 弑君한 죄인이고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무자비한 독재자이며 고구려의 멸망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기록했지만 박은식의 <<연개소문>>에서는 그를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경쟁의 담략을 지닌 민족의 역사상 1 인자로 평가했다.

신채호와 박은식은 역사속에서 진실로 존재한 인물들 속에서 특별히 옛날 史家들에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나라를 멸망시킨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국가독립에서 수요되는 정신을 이러한 인물들속에서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양계초의 역사속에서 사학자들에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을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중국의 자주독립에 수요되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창작동기와도 일치하다.

²⁵ <<閱讀梁啓超>> 夏曉虹 三聯書店 2006 287 면참조

²⁶ 梁啓超 <<袁崇煥傳>>

2. 양계초 소설관의 한국전파

양계초의 소설관련담론을 발표한 시간과 잡지는 다음 도표와 같다.

양계초의 소설관련담론	발표시간	발표지
變法通議 論幼學	1896	時務報
蒙學報演義報合敍	1897	時務報
譯印政治小設序	1898	清議報
傳播文明三利器	1899	清議報
論小說與群治之關係	1902	新小說
新中國未來記緒言	1902	新小說
新小說第一號	1902	新民叢報
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說	1902	新民叢報

위 도표에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계초의 소설관련 담론은 1896년부터 1902년까지 <<時務報>>, <<清議報>>, <<新小說>>, <<新民叢報>>에 발표되었다. 후에 상술한 문장들은 上海 廣智書局에서 1903년에 출간한 <<飲氷室文集>>에 포함되었고, 1905년에 출간된 <<(分類精校) 飲氷室文集>>에도 포함되었다.

본 부분에서는 양계초의 소설관련담론이 포함된 윗잡지와 서적이 한국으로 전파한 경로를 찾아보고자 한다.

(1). <<時務報>>와 한국

<<時務報>>1896년 8월 9일에 창간되어 1898년까지 2년동안 69기가 발행되었다. 그 중 양계초의 문장은 모두 60편²⁷이 된다. 이는 당시 자산계급경향을 가진 사대부지식분자와 통치계급중 애국분자들의 호응을 받아 처음 발간 때의 3000부로 부터 최고발행부수는 1,6만부로 올라 일약 당시에 발행량이 최고이고 영향력이 최대 큰 잡지로 상승했다. 이로 양계초는 <<時務報>>시기에서 “言論界 嬌子”란 미영을 안게 되었다.

중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잡지가 한국에도 알려졌겠는가? <<한국근대소설론연구>>에서 양계초의 사상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것은 1897년의 <<청국형세의 위기>>에서 양계초의 사상이 소개되었다²⁸는 것을 보면 <<時務報>>와 <<時務報>>시기의 양계초의 문장이 한국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時務報>>에 대해서도 양계초는 “甲午전쟁에서 실패한 후 창간된 <<時務報>>는 일시에 海內를 風靡하였고 몇개월만에 만여부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도 신문이 탄생한이래 없었던 일이며 전국사람들이 狂泉을 마시듯 따랐다²⁹”는 회고록에서 <<時務報>>가 해외까지 풍미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한국에

²⁷ <<梁啓超評傳>> 南開大學出版社 蔣廣學 何衛東 2005년 7월 51면참조

²⁸ <<한국근대소설론연구>>安玄浩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7년,

<<양계초소설사상의 조선근대소설이론에 대한 영향>>, 李勇男

²⁹ <<飲氷室文集 專集>>6 52면참조

까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2). <<清議報>> 한국에서의 발행판매 현황

<<清議報>>는 1898년 12월 23일에, 일본의 橫濱에서 旬刊으로 창간되고 1901년 11월 11일까지 3년 견지하다가 100기까지 발행되고 정간되었다. 이 잡지는 매달 3책, 매기에 40페이지로 발행량은 3천여책, 그리고 발행 판매지는 일본, 남양(南洋), 구미(歐美), 오스트랄리아 등 국가와 지방에까지 판매 되었는데³⁰ 한국에서의 위탁 판매지는 서울와 인천에 두었다.³¹ 이로 <<清議報>>는 한국에까지 판매되어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로 하여 大韓 光武 3년(1899) 1월 13일자 <<皇城新聞>>의 “外報”欄에 “<<清議報>> 요고하마에 在留하는 淸國인이 發行하는 <<清議報>>를 客년 臘月 23일에 初號를 發刊하였는데, 記者는 梁啓超氏라……<<清議報>>는 此時國을 痛論하여 丙으로 大清 四百兆民人의 惰眠을 警戒하고, 外은 東邦 諸識者의 敎導함을 瞻仰한다 하였더라”라든가 大韓 光武 3년(1899) 3월 17일자 <<皇城新聞>> 1면 論說에 “余近日에 <<清議報>>를 閱覽하다가 淸國哀時客이란 志士의 愛國論을 見함이……”³²란 기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新民叢報>> 및 <<新小說>>과 한국

<<新民叢報>>는 1902년 2월 8일에 창간되어 1907년 12월에 정간되었고 모두 96호를 발간했는데 최고발행부수는 14000부였다.³³ 양계초는 “사회의 환영을 받은 것은 뜻밖이었다³⁴”고 했지만 <<新民叢報>>는 <<清議報>>에 비해서 지명도가 더욱 높아 海內외의 영향력은 더욱 광범했는데 중국에서의 발행지방만해도 97개가 있었다³⁵. <<新小說>>은 1902년에 양계초가 요코하마에서 창간했는데 1906년 좌우에 정간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소설”로 명명한 문학잡지이다.

양계초는 <<清代學術概論>>에서 “啓超가 선전을 업으로 한 이래<<新小說>>과 <<新民叢報>>등 잡지는 國人들의 환영을 받아서 청정부의 엄금에도 제지시키지 못하고 매번 잡지가 나오기만 하면 국내에서의 翻刻本은 열개나 된다”³⁶고 하면서 그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新小說>>과 <<新民叢報>>는 이처럼 중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잡지가 출간한 즉시 한국에 발행판매되었다.

<<新民叢報>>의 국내외에서의 <<新民叢報>>의 海內外 위탁 판매지방은 75³⁷개나 되었고 1903년 초에는 87개로 증가되었으며 일본 요코하마를 제외하고는 동경, 長崎(崎), 한국인천, 중국내에는 상해, 북경, 광주등 44개 지방이 있었다³⁸.

³⁰ <<梁啓超與日本>>天津人民出版社 史雲豔 2005년 6월 208면 참조

³¹ <<中韓近代新小說比較研究>>, 박사학위논문, 趙楊, 83면 참조

³²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李在鎰

³³ <<梁啓超與日本>>天津人民出版社 史雲豔 2005년 6월 213면 참조

³⁴ <<梁啓超自述>>河南人民出版社 崔志海編 2004년 5월 47면 참조

³⁵ <<梁啓超與日本>>天津人民出版社 史雲豔 2005년 6월 214면 참조

³⁶ <<清代學術概論>>, 東方出版社 1996년판 77면 참조

³⁷ <<新民叢報>> 第20号 1902년 11월 14日 廣告 “<<新民叢報>>各代派處”;

<<中國近代4大小說雜誌研究>>, 산동대학 2000년 박사학위논문, 郭浩帆, 36면 참조

³⁸ <<新民叢報>> 第24號 1903년 1월 13日 廣告 “癸卯年本報各代派處”;

<<中國近代4大小說雜誌研究>>, 산동대학 2000년 박사학위논문, 郭浩帆, 36면 참조

<<新小説>>도 <<新民叢報>>의 발행망을 따라 한국에 발행판매되었다.

<<新民叢報>>의 <<新小説>>에 대한 광고문 <<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説>>>의 “海內外 각 都會市鎮에서 <<新民叢報>>을 위탁판매하는 곳에는 모두 본 잡지가 寄售되니 열독자는 구매신청을 할 것³⁹”이라는 광고문을 보면 <<新小説>>창간이후 <<新民叢報>>의 발행망을 이용하여 한국의 인천에 寄銷방식으로 한국사회에 발행판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飲氷室文集>>과 한국

1903 년에 上海 廣智書局에서 출간 한 <<飲氷室文集>>은 양계초가 변법을 주장했던 1896 년 7 월에 <<時務報>>부터<<新民叢報>>를 창간할 때 까지 7 년간 쓴 글을 모은 것인데 이 문집은 간행된 즉시 한국에 전해졌으며 <<飲氷室自由書>>란 이름으로 1908 년 4 월에 국관 240 면으로 塔印社에서 간행하였다.⁴⁰ 上海 廣智書局은 양계초가 장악한 것이고 또 북경 유리창에도 서점을 두고 있었다. 주지하시다시피 유리창은 고대로 부터 한국문인들이 중국을 다녀갈 때마다 유리창에서 책을 많이 구입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필자는 양계초의 저작 <<飲氷室文集>>이 여기에서 한국으로 전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윗 글의 <<新民叢報>>와 <<新小説>>의 판매망을 따라 한국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3. 한국애국계몽기와 양계초소설관 및 수용원인

(1).한국애국계몽기와 양계초소설관의 수용

양계초가 중국 언론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1896 년부터 1904 년 좌우이다. 양계초는 <<時務報>>시기 강유위를 따라 유신변법사상을 선전하고 무술변법에 참여하였다가 무술변법이 실패한 후 도일해서 광범위하게 서방사회의 정치경제사상을 소개하면서 계몽활동을 진행하여 중국 언론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당시 중국전반 사회에서는 모두 그의 啓發을 感受하고 그의 領導를 接受하여 그 세력은 아주 성대해 그와 동시대의 그 어떤 인물 - 康有爲, 章太炎, 陳獨秀, 胡適 등 이 따라오지 못하는 광범위하고 유력한 영향력을 발생하였다.⁴¹ 하지만 1904 년 이후로는 양계초의 근대 계몽사상운동중 그의 위치와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손중산등이 동맹회를 조직하고 <<民報>>에서 혁명적인 수단으로 봉건제도를 뒤엎어야 한다는 설이 중국에서 환영을 받게 되면서 보수적이고 군주입헌제정체에 미련을 갖고 있는 양계초의 사상은 당시 중국에서 다시는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양계초 자신도 한때는 康有爲, 嚴復등과 같이 시대에서 제일 앞장섰던 신사상계의 용사였지만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초과해서 그는 배척당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와

³⁹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 北京大學出版社 1989 년 3 월, 陳平原 夏曉虹 46 면참조

⁴⁰ <<개화기 언론과 중국-梁啓超를 중심으로>>, 李萬烈, 1996

⁴¹ <<나의 노력과 반성>>, 中國瀋江出版社, 1985 년, 梁漱溟, 338 면 참조

떨어졌다⁴²고 하면서 이를 승인하였다. 후에 <<新民叢報>>와 <<新小説>>이 잡지가 1906 년과 1907 년까지 간신히 운영하다가 부득불 정간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양계초가 1896 년부터 1904 년에 중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에 한국에 알려졌던 문장은 1897 년에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제 2 호에 <<淸國形勢의 危機>>란 글에서 양계초가 1896 년에 발표한 <<波蘭滅亡記>>의 내용을 번역소개⁴³된 것과 또 <<淸國戊戌政變記>>란 양계초의 저서가 1900 년 9 월에 현재에 의해 번역되어 編輯局에서 翻刊⁴⁴하였는 자료밖에는 필자는 보지 못했다.

양계초의 소설관이 한국에서 많이 인용되고 수용되었던 시기는 1906 년 후부터이다. 양계초의 소설관련 논설은 1896 년 부터 1902 년의 <<變法通議論幼學(1896)>>, <<蒙學報演義報合敘(1897)>>, <<譯印政治小設序(1898)>>, <<傳播文明三利器(1899)>>, <<論小説與群治之關係(1902)>>, <<新中國未來記緒言(1902)>>, <<新小説第一號(1902)>>, <<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説(1902)>>에 집중되었는데 이러한 논설은 1906 년후에 한국의 <<서사건국지>>(1907), <<대한매일신보>> 1908 년 논설, 신채호의 <<近今國文小説 著者の 注意(1908)>>와, <<小説家の 趨勢(1909)>>에서 인용되었다.

그리고 양계초가 1905 년에 창작한 <<월남망국사>>는 1906 년에 한국에서 번역출판되었으며 1902 년에 번역한 <<이태리건국 3 결전>>은 1907 년에, 1903 년에 번역한 <<항아리아국자갈소사전>>은 1906 년에, 1902 년에 번역한 <<나란부인전>>은 1908 년에 모두 한국에서 번역출판되었다. 그리고 양계초가 1896 년의 <<時務報>>부터 <<新民叢報>>를 창간할 때 까지 쓴 글도 1908 년에 <<飲氷室自由書>>라는 이름으로 塔印社에서 간행하였다.⁴⁵

개화계몽시대의 영웅전기와 다른 나라의 망국사는 서사담론의 성격 자체가 외세 침략에 대응하는 민족 내부의 역량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또 타자로서의 침략적 외세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민족적 주체 확립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⁴⁶ 과거 역사속에서 민족이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역사적 위기를 타개하였다는 사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이 만들어 낸 조선보호론 자체를 거부하는 하는 정치적 속성을 띄고 있다.⁴⁷

하지만 1906 년 부터 양계초의 소설관이 대폭 수용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한국의 신소설의 효시로 불리는 이인직의 소설 <<血之淚>>이 발표되었고 후에 <<鬼之聲>>, 1908 년에는 <<치악산(상편)>>과 <<은세계>>상권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양계초의 소설관에 공감을 갖고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역량의 제고로 소설로서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는 애국계몽자들의 소설과는 서로 다른 경향을 띄고 있다.

이인직의 소설은 신채호와 박은식등의 소설과는 달리 신소설을 통해 낯은 세계에 대한 단호한 비판가 거부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계로서의 지향을 강조하는데 그 새로운 세계의 지향을 위해 서구 문명을 일찍 수용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함을

⁴² <<飲氷室合集·文集>>9, 45 면 참조

⁴³ <<中韓近代新小説比較研究>>, 박사학위논문, 趙楊, 83 면 참조;
<<梁啓超와 한국근대정치소설의 因緣>>, 當代韓國, 1998 년夏季號, 李京美

⁴⁴ <<韓國開化期小説研究>>, 一潮閣, 1972, 李在銑 149 면 참조

⁴⁵ <<개화기 언론과 중국-梁啓超를 중심으로>>, 李萬烈, 1996

⁴⁶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 세기 말에서 20 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년 12 월, <<개화기 서사양식의 분화과정과 반식민주의 담론의 형성-영웅전기와 우화풍자를 중심으로>>, 권영민

⁴⁷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 세기 말에서 20 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년 12 월, <<개화기 서사양식의 분화과정과 반식민주의 담론의 형성-영웅전기와 우화풍자를 중심으로>>, 권영민

강조한다. 이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개화지상주의로 인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호하는 식민주의 담론의 허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식민주의 담론의 질서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이로 필자는 1904 년으로 부터 발족한 애국계몽운동의 전개로부터 양계초의 소설관이 수용되었다고 본다.

청일전쟁(1894)으로 청이 한반에서도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세력을 균형이 되고 있을 때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균형을 깨고 러일전쟁 (1904)을 벌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자로 등장한 일본은 이때로부터 한일의정서(1904.2.23), 한일협약(1904.8.22), 한일협상조약(1905.11.17), 한일신협약(1907.7.24)등을 차례로 체결하면서 한반도의 식민화를 실행해 나갔다. 그리고 1906 년 2 월 설치된 통감부의 초기 한국에 대한 정책은 한국을 즉각적으로 합병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감부의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施政改善을 해나가면서 한국인의 거부감과 저항을 무마함으로써 장래 궁극적으로 한국을 합병한다는 선상에 놓여있었다⁴⁹. 施政改善은 일제가 자신들이 행하는 식민지화 사업의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 내세운 구호이다. 말인즉 동양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의 내정을 개선하고 한국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문명적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일제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일제의 대륙침략 요구에 맞는 질서를 한반도에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화폐 · 금융 · 운수 · 교통체계를 비롯하여 사법 · 행정제도에 걸쳐 광범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대적’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일제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과 성장을 위한, 일본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⁵⁰.

이와 함께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저항과 국권의 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폭넓게 전개하였는데⁵¹ 후에는 보안회, 신민회 등 정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회보발행, 연설회등 활동을 통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의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활동을 벌이었다⁵². 이 때 양계초의 양계초가 문장중에서 소설이 “熏, 浸, 刺, 提,” 라는 4 력이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고(感人) 마음속이 깊이 들어갈 수(入人)있는 기묘하고 신기한 기능을 갖고 있어 문학중의 제일이라⁵³ 소설로서 국민의 정신을 분발하게 하고 국민의 지식을 넓히며⁵⁴ 국민의 정치사상을 밝히고 애국정신을 격려⁵⁵ 해야 하며 <<水滸>>, <<三國>>, <<紅樓>>등 고전소설들이 일반민중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음탕을 가르쳤다⁵⁶ 고 비판하면서 新소설로서 국민의 정치사상을 밝히고 애국정신을 격려하며 일체의설적이고 도덕교육에 방해되는 것은

⁴⁸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권영민

⁴⁹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 세기 말에서 20 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년 12 월, <<갑오개혁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형사법을 중심으로>>, 도면회 285 면 참조

⁵⁰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 세기 말에서 20 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년 12 월, <<자강운동기 문명개화론의 일본 인식-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권대역, 455-456 면 참조

⁵¹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 세기 말에서 20 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년 12 월, <<개화기 서사양식의 분화과정과 반식민주의 담론의 형성-영웅전기와 우화풍자를 중심으로>>, 권영민 87 면 참조

⁵²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년, 강만길 234-238 면 참조

⁵³ <<論小說與群治的關係>> <<新小說>>第一卷第一期 1902 년 11 월

⁵⁴ <<新小說第一號>><<新民叢報>>第 22 號 1902 년

⁵⁵ <<中國唯一之小說報-新小說>>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說>>新民叢報 14 號 1902 년

⁵⁶ <<變法通議>>中<<論幼學>>, 刊載在<<時務報>>1897 년, <<譯印政治小說序>><<清議報>>第一冊, 1898 년 12 월 23 日

배제한다⁵⁷ 하고 중국문명을 개도한다⁵⁸ 는 소설론이 애국계몽기에서 애국계몽운동자들에게 國亡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국민들의 국민으로서의 각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⁵⁹려고 수용되었다.

(2). 한국애국계몽자 그리고 양계초의 중국정통문학관

양계초의 소설론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인물전기의 창작과 번역에 종사한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등은 모두 중국의 전통문화 그리고 유학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유학자들이다. 이들의 중국의 전통문화에 익숙한 지식수양으로 인해 중국전통문학관과 불가분리적인 공동점을 안고 있는 양계초의 소설관을 수용하기에 편리를 가져다준 것도 애국계몽자들이 양계초의 소설관을 수용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다.

양계초의 소설관이 명확히 형성되는 시기는 일본 망명시기이고 또 일본의 정치소설이 양계초에게 준 영향력도 지대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양계초의 소설관은 일본에 망명하기 전부터 소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계초는 1897년 <<蒙學報演義報合敍>>에서부터 양계초는 “일본변법의 성공은 소설의 힘을 입었다”고 하면서 소설과 정치운동을 연계시켰으며 1896년에 쓴 글 <<變法通議>>에서는 “소설로서 聖敎를 설명하고, 史事를 雜述하고 國恥를 激發하고, 末俗을 振勵한다”고 하면서 소설과 사회교화, 역사 기술, 국민의 정치 민감성 배양등과 연결시키면서 소설의 작용을 논술한바 있다.

양계초의 이러한 소설에 대한 인식은 일본망명시기 일본의 영향을 받아 소설의 영향력에 대해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되었다. 1898년 <<譯印政治小說>>에서는 유럽각국에서 정계가 날로 진보하게 된 것은 정치소설의 공로가 제일 크다고 하면서 소설을 국민의 혼이라고 한 것은 1897<<蒙學報演義報合敍>>에서 소설을 정치와 연관시켜 놓은 것, 그리고 <<論小說과 群治와의 關係>>에서 소설이 人群에 대한 영향력을 “熏, 浸, 刺, 提,” 라는 4 력으로 해석하면서 소설을 群治와 新民건설과 연계시키고 또 <<新小說第一號>>에서 소설을 제창하는 목적은 국민의 정신을 振하고 국민의 지식을 開한다고 하면서 소설가의 소설로서 국민의 정시사상을 發起하고 애국정신을 激勵한다고 한 것은 모두 <<變法通議>>에서 소설작용의 논술의 심화이고 구체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계초의 소설론은 일본망명시기 일본정치소설의 영향을 받아 성숙되었지만 양계초의 소설관은 일본망명전에 일본의 정치소설을 접하기 전에 소설에 대한 인식이 기본상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본망명전에 주로 중국의 정통문학의 수양을 받은 양계초는 그의 소설관도 중국의 전통문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양계초의 소설관이 사회교화와 인심풍속의 개량등을 강조하는 중국의 載道전통문학관과 동일한 공리주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데서 잘 표현된다. 그리고 또 양계초의 소설관이 중국전통문학과 불가분리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근대사회에서도 아무런 저애력이 없이 전반사회에 신속히 퍼진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필자는 이와 동일한 이유로 국권회복운동에 주력을 둔 애국계몽자들에게 引用되었다고 생각한다.

⁵⁷ <<中國唯一之小說報一新小說>>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說>>新民叢報 14號 1902년

⁵⁸ <<新小說第一號>><<新民叢報>>第 22號 1902년

⁵⁹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세기 말에서 20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년 12월, <<자강운동기 문명개화론의 일본 인식-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권태억, 476면 참조

4. 양계초 소설관의 쇠퇴원인

이상으로 양계초의 소설관은 대중계몽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자들에게 많이 수용되었다는 것을 검토했다. 이는 애국계몽운동자들이 국민대중의 우매함이 국권상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대중계몽을 통한 실력양성이 국권회복의 길이라 보았기 때문이다⁶⁰.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응해 나선 애국계몽자 즉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호하는 자였다. 그들의 작품에서는 일본 통감부 설치를 인하여 훼손된 민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널리 구현하고자 하는 계몽적인 의도가 강하다⁶¹. 하지만 1910 한일합방으로 구국구민, 민족독립등을 주장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탄압대상으로 되면서 대부분 애국자들이 중국 혹은 러시아로 망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양계초 소설관은 한국의 애국계몽운동의 탄압과 함께 퇴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일합방으로 인한 1910년 5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식민지 문화정책은 자주독립을 선호하는 애국계몽성을 드러내는 작품은 모두 압수당하고 식민지문화에 대응하는 작품들은 모두 발매 반포 금지 도서 목록에 오름으로 이는 양계초 소설관의 전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양계초의 문장<<民族競爭論>>과 양계초의 문장을 번역한 <<飲氷室自由書>>, 그리고 양계초가 번역한 <<이태리진국삼걸전>>, <<라란부인전>>, <<항아리에국자갈소사전>>도 금서로 되었으며 <<월남망국사>>도 금서목록에 올랐으며 신채호가 창작한 <<乙支文德-漢文>>, <<을지문덕(국문)>>도 모두 금서로 되면서 양계초의 사상과 양계초 소설관의 전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계초 소설관의 낙후성도 그의 소설론이 한국에서 퇴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양계초가 1897년 <<時務報>>때 부터 <<清議報>>, <<新民叢報>> 및 <<新小説>>를 통해 특별히 일본망명시기에 중국의 교육, 정치, 문학 등 방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孫寶瑄의 <<忘山廬日記>>⁶²에서는 “한 친구가 일본에서 돌아와 양계초의<<新民叢報>>에서 新理가 온 잡지에 충만되어 우리나라 사람이 읽으면 눈이 둥그레지고 놀라지만 일본사람이 보며는 다 침을 뱉는다 하며 중국사람과 일본사람들이 양계초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적었다. 이것은 양계초가 일본 망명시기에 일본에서 많은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또 이로 중국사람의 사상을 啓蒙하는데 큰 작용을 발휘했지만 당시의 일본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오래되고 낡은 사상이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의 소설관도 마찬가지이다. 1896~1902년 사이에 양계초가 일본의 정치소설의 작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에서도 소설의 영향력으로 사회와 국민성의 개량에 기여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소설문단에 소개되면서 중국에서 “소설계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일본문단에서는 양계초가 높게 평가하던 정치소설은 이미 부정되고 사실주의와 낭만주의가 문단을 좌우하던 시기였다.

한국의 전과과정을 보면<<時務報>>, <<清議報>>, <<新民叢報>>및 <<新小説>>가 한국에 발행판매됨으로 1897~1902년 사이에 한국에서 한학자들에게

⁶⁰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년, 강만길 238면 참조

⁶¹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세기 말에서 20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년 12월, <<개화기 서사양식의 분화과정과 반식민주의 담론의 형성-영웅전기와 우화풍자를 중심으로>>, 권영민

⁶² <<忘山廬日記>>(上) 上海古籍出版社 1983년 孫寶瑄 549면 참조

알려지다가 1904년~1910년 애국계몽시기에 양계초소설관이 한국의 매체과 소설가들에게 빈번히 인용되었다. 하지만 윗글의 박은식, 이해조, 신채호 등의 소설관과 양계초의 소설관을 검토한 데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양계초의 소설관의 '결점'이 하나도 극복함이 없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 한국의 일본유학생들이 급속히 증가한 시기이다. 1904년에는 260명, 1905년은 449명, 1906년은 583명, 1907년은 735명, 1908년은 805명이 되었다⁶³.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일본유학생들은 일본문단에서 자연히 양계초와 다른 소설관을 접수했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유학생살을 거쳐 새로운 문학관을 섭취하고 창작을 시작했으며 또 일본잡지들이 한국에서 발간됨에 따라 잡지에 애국계몽자들의 주장하고 창작한 소설과 다른 소설작품을 창작하였다. 그 가운데 李仁植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李仁植은 <<血의 淚>> (1906), <<鬼의 聲>>등을 발표함으로써 애국계몽자들이 창작된 소설에서 나타나는 식민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 경향과는 달리 일본식민주의 담론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경향에서 큰 차이를 보일 뿐만아니라 인물선정에서 애국계몽자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영웅들과는 다른 일상생활중의 보편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등에서 모두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후에 이광수등이 소설문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 양계초의 소설관이 '결점'이 극복되면서 양계초의 소설관의 영향은 쇠퇴되었다.

결론

이상으로 양계초의 소설관련논설은 1896년 부터 1902년 사이에 <<時務報>>, <<清議報>>, <<新民叢報>>, <<新小説>>이 한국에 발행판매됨에 따라 그리고 양계초의 문장을 묶은 <<飲水室文集>> 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국지성계에 알려지다가 1904년에 발족한 애국계몽운동에서 소설로서 민중을 계몽하여 國亡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으로서의 각성의 필요성을 깨닫게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고 국권회복운동에 주력을 둔 애국계몽자들에게 인용되면서 양계초 소설관의 수용이 고조를 이루었지만 양계초소설관의 낙후성 및 한일합방과 일제식민지문화정책으로 퇴조되었다고 정리되었다.

⁶³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19세기 말에서 20세기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년 12월, <<자강운동기 문명개화론의 일본 인식-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권태익, 457면 참조